



프로야구 열기 속으로

프로야구가 한국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1억 관중을 돌파한 30일 KIA와 한화의 경기가 열린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1만3400관중이 찾으면서 올 시즌 7번째 매진 사례를 이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주영, 16강 사냥 내게 맡겨!

남아공 월드컵 D-11

허정무호 간판 스트라이커로 해결사 특명 부상 회복...그리스 등 본선무대 골문 노크



“우리 팀이 원하는 (월드컵 출전 사상 첫 원정 16강)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

축구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박주영(25·AS 모나코)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10여일 앞두고 누구보다 어깨가 무겁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는 대표팀의 막내로 참가해 스위스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만 출전했으나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본선 상대인 그리스와 아르헨티나·나이지리아의 골문을 열 해결사 특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간판 스트라이커인 그의 발끝에서 골이 터진다면 한국의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 꿈도 현실이 될 수 있다.

지난 16일 에콰도르와 평가전에 결정했던

그는 24일 일본과 친선경기 때는 후반에 교체 투입돼 45분을 뛰면서 추가시간에 2-0 승리를 확정 짓는 페널티킥 빼기골을 터뜨렸다.

박주영은 전지훈련지인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트 훈련에서도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절정의 감각을 뽐내고 있다.

그는 지난 29일(한국시각) 캄플구장에서 진행된 대표팀 자체 실전경기에서 후반 갑작적인 프리킥 골을 터뜨렸다. 아르헨티나 프리킥 찬스에서 오른발로 감아 찬 공은 수비수 사이로 빠르게 통과한 뒤 오른쪽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골키퍼 이운재가 몸을 날려 봤지만 속수무책일 정도의 위력적인 슈팅이었다. 그는 가상 상황의 페널티킥에서도 키커로 나서 골키퍼 이운재가 꼼짝 못할



강한 슈팅으로 골문을 갈랐다. 한국의 월드컵 첫 원정 16강 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는 그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연합뉴스

이다. <이제부터 베스트 11 경쟁=베스트 11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박주영은 투톱 라인에 한 자리를 확실하게 예약했고 좌우 측면 미드필더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가 박지성과 이청용이 나선다. 중앙 미드필더 듀오는 기성용과 김정우가 먼저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포백 수비라인의 이영표·차두리·조용형이 주전 경쟁에서 한 걸음 앞서 있다. 골키퍼는 이운재가 주전이지만 에콰도르·일본과 평가전에서 골키퍼 장갑을 끼었던 정성룡도 이운재와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미드필더진에선 박지성-이청용, 김정우-기성용 단짝이 오랫동안 대표팀에서 활약해 왔다. 좌우 날개 백업 멤버로는 김보경과 김재성이 한 자리를 노린다. 베테랑 김남일은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이 유력하고 구자철과 신형민 중 한 명이 최종엔트리에 포함된다면 벤치 멤버로 대기한다.

골키퍼 한 자리는 이운재와 정성룡이 막판까지 허정무 감독의 믿음을 얻으려고 경쟁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돌아온 나지완 화끈한 신고

역전 2루타... KIA, 한화에 6대2 승

거포 나지완이 화끈한 복귀전을 치렀다. KIA 타이거즈가 30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5월 마지막 경기에서 나지완의 결승타에 힘입어 6-2로 2연승을 달렸다.

지난 19일 타격부진으로 2군행 짐을 짠 나지완은 1군 복귀전에서 2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다.

선발로 출격한 윤석민은 8이닝 동안 3피안타 5사사구 8탈삼진의 호투를 선보이며 세 번째 도전 만에 4승을 챙겼다. 이날 130개의 공을 던지며 올 시즌 최다 투구수를 기록한 윤석민은 2회초 9번 타자 이대수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팀의 2만번째 탈삼진의 주인공도 됐다. 이 탈삼진으로 KIA는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2만 탈삼진을 기록하며 ‘투수 왕국’의 위업을 과시했다.

지난 26일 LG전에서 3분의 2이닝 8실점(6자책)으로 1회에 강판됐던 윤석민이 4일 만에 명예회복에 나섰다. 시작은 좋지 못했다. 1회초 첫 타자 강동우를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낸 뒤 김태완에게도 볼넷을 허용하며 1사 1·2루의 위기를 맞았다. 이후 최진행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선취점을 내렸다.

2회말 이날 1군 엔트리에 재합류한 나지완이 첫 타석에서 몸에 맞는 볼로 걸어났다. 이종환의 볼넷으로 만든 1사 1·2루에서 김선빈이 중전안타로 2루 주자를 불러들이며 점수는 1-1이 됐다. 하지만 5회초 한화가 김태완의 2루타로 추가 점수를 뽑으며 1-2로 승부의 균형을 잡았다.

소나기가 지나가면서 12분 동안 경기가 중단된 뒤 재개된 6회초, 윤석민이 처음으로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 했다.

6회말 선두타자 안치홍이 내야안타로 출루하면서 KIA에게 반격의 기회가 찾아왔다. 최희섭과 차일목이 볼넷과 몸에 맞는 볼로 걸어나가면서 무사 만루, 나지완이 좌익선상을 깨줬다. 2루타를 터트리며 3-2로 경기를 뒤집었다. 김선빈도 낮은 볼을 받아 중전 안타를 만들어내며 타점을 추가했다.

KIA는 신예 선수들의 활약으로 주말 2연

승을 거뒀지만 선발진 재정비를 통한 ‘5월 대반격’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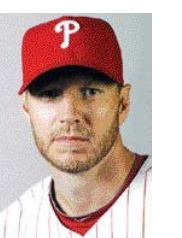
5월 한 달 KIA는 플러코스터를 타는 타선과 김상훈·김상현 등 주전선수들의 부상 속에 14승10패를 기록하는데 그치며 5월 승률로 5월을 마감하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MLB 20번째 퍼펙트

필라델피아 할러데이 달성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오른손 정통파 투수 로이 할러데이(33)가 미국프로야구 통산 20번째 퍼펙트 게임의 위업을 달성했다.



할러데이는 30일(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선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플로리다 말린스와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 9이닝 동안 27타자를 맞아 안타와 볼넷을 허용하지 않고 삼진 11개를 곁들이며 상대 타선을 공포 묶어 1-0 승리를 이끌었다. 연합뉴스

허정무호 최종엔트리 내일 확정 이제부터 베스트 멤버 담금질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6월 11일(이하 한국시각) 개막하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인 허정무 감독은 본선에서 나설 23명의 태극전사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장고를 거듭 중이다.

대표팀은 다음 달 2일(한국시각) 오전 7시까지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에 참가 중인 예비명단 26명 중 3명을 제외하고 최종 23명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해야 한다.

허정무 감독은 6월 1일 코칭스태프 회의를 거쳐 최종 23명의 명단을 확정하기로 했다.

<마지막 생존경쟁-최후의 23인>은 최종 23명에는 허정무 감독이 강한 믿음을 보이는 해외파 12명이 전원 살아남을 것으로 보

인다. 이들은 기량이 검증된 것은 물론 유럽 무대에서 외국 선수들과 많은 경기 경험을 쌓았다는 게 강점이다. 다만 김보경은 원발이면서 전천후 선수라는 강점에도 허정무 감독이 막판까지 고민하는 후보 중 한 명이어서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결국 탈락하는 세 명은 국내파, 특히 미드필더진과 공격수에서 나올 공산이 크다.

골키퍼는 3명, 각 포지션별로 2명씩 복수로 뽑는다는 게 허정무 감독의 기본 구상이어서 수비진은 어느 정도 고정됐다.

살생부에 오를 후보는 부상에서 회복 중인 이동국(전북), 신예 스트라이커 이승렬(FC서울) 등 공격수 2명과 신형민·김재성(이상 포항)·구자철(제주) 등 미드필더 3명

프로야구 관중 1억 넘었다

문학구장 찾은 중학생 1억번째 주인공

무등경기장도 울들어 7번째 만원 사례

프로야구가 29시즌만에 1억 관중을 돌파했다.

30일 SK와 롯데의 경기가 펼쳐진 문학구장에서 프로야구 1억번째 유료 관중이 탄생했다. 1982년 프로야구가 개막한 지 29시즌, 1만3천865경기 만에 1억 고지를 넘어선다. 국내 프로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관중 1억 시대가 열렸다.

또 29일에 이어 30일 KIA와 한화의 경기가 열린 무등경기장을 비롯해 문학·북동·잠실 등 4개 전구장이 매진되면서 프

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전구장 이틀 연속 매진기록도 달성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날 관중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기 위해 바코드가 찍힌 용지를 따로 발급하는 등 1억 관중 돌파에 대비했다.

1억 번째 입장 행운의 주인공은 안백철(13·인천 갈산중 1년)군이 됐다. 오후 4시 37분 09초에 입장한 안군은 1억번째 관중이 되면서 KBO로부터 전 구장 평생 입장권과 외식업체 빙스, 삼성 기프트 카드

가 제공되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게 됐다.

원인 100만 관중을 동원한 프로야구는 1986년 10월 16일 OB(현 두산)와 삼성의 플레이오프 4차전 때 1천만 관중을 돌파했다. 프로야구 개막 이후 13년만인 1995년 처음으로 500만 관중 시대를 연 뒤 2008년 두 번째 500만 고지를 밟았다. 지난해에는 1만 1562명으로 역대 최대 관중을 기록했다.

한편 무등경기장에 이틀 연속 만원 관중이 들어섰지만 주말 2연전동안 전광판 중앙 화면이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야구장을 찾은 관중들이 불편을 겪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